

김흥호 칼럼 기독교 경전강의

# 아름다움, 참, 선

| 김흥호 |

이 세상 최고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상 만물 모두가 진리고, 선하며, 아름다움임을...(편집자 주).



기도란 무엇인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 그게 아니지요. 내가 현금 기도할 때는 그저 늘 같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조그만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써 주십시오. 이 물건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써 달라는 말과 그리고 내 자신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십자가지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듯이 예수님께서 하듯이 바치는 것이지요.

십자가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진짜 기도이지요. 우리는 기도를 입으로도 할 수 있고, 몸으로도 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몸으로 기도했습니다. 몸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시간도 하나님께 바치고, 공간도 하나님께 바치고, 일체를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왜 바칩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며칠 있다가 내어놓아야 하니 아무것도 내 것인 것이 없습니다.

이 육체, 이게 내 것입니까. 내 것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합니까. 병에 걸렸는데 병을 오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에 치였는데 내 것인데 왜 치느냐고 그럴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남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남의 것이라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곧 가야 합니다. 그 이상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성경이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지만 읽어서 될 것이 있습니다. 될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성경의 경經 자는 망원경, 현미경의 ‘경鏡’ 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성경이지, 백 번 읽으며 될 하겠습니까. 천 번 읽으면 될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을 보자는 것이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없다면 성경 읽는다는 것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 때 한없는 기쁨이 넘친다는 뜻이지요. 이 세상에서 산다면 우울하고, 슬프고, 기가 막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한 기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데 기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자꾸 찬송이 나옵니다. 산에 가도 찬송이 나오고, 집에서 찬송이 나오고, 자꾸 나와요. 나는 도레미파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배운 찬송가 때문에 속으로 우물우물 부르게 됩니다. 늘 우물우물 찬송하며 산다는 것, 좋은 것이지요. 늘 찬송을 부르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그밖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활이 무엇인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찬송 부르는 것이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낮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그렇  
게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보  
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지  
요. 가끔 미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허깨비를  
본 것이지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  
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하나님이 어떻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사  
람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  
떻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  
다고 말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어  
떻게? 말씀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빼놓고 하나님을 보았  
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부활이란 무엇인가. 찬송하는 것이지요. 자꾸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  
으면 부활한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부활하지  
못한 것이지요. 자꾸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이 부활이지 별 것 없습니  
다.

기도와 성경과 찬송, 우리가 예배를 본다고 하는 것도 이 세 가지 외  
에 더 없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보아도 되지만 여기에 와서 다 같이 보  
면 더 좋지요. 기쁨이 배로 넘치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 내 기쁨이 배로 넘쳐 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찬송을 부르면  
기쁨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기뻐하고, 여기서만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게 됩니다. 바울 선생이 무어라고 그랬

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요. 기뻐한다는 것이 히죽히죽 웃는다거나 허허 웃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인가. 내 스스로가 하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체가 하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나는 생명이라는 거지요. 내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중얼중얼 거리고 밥 먹을 때마다 우물우물 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의 기도요, 하나의 성경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나 자신이 기도가 되고, 나 자신이 찬송이 되고, 나 자신이 성경이 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 나와 통 상관없고 예수만 그렇다면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하고 내가 손을 잡는 것이예요. 예수와 내가 손을 잡았으니 예수가 기쁘면 나도 기쁘지 예수가 기뻐하는데 나 혼자 슬플 리가 있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을 이야기했지만 성경만 성경입니까. 그게 아니지요. 이 우주가 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는데 우주 전체가 성경이 아니겠어요? 산에 가도 그것이 성경이지요. 별이니, 꽃이니, 풀이니 우주 만물 모두가 성경입니다. 성경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건, 그게 다 ‘복음’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사건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란 곧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이게 이렇구나, 그런 것이로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만이 망원경이

산에 가도 그것이 성경이지요.  
별이니 꽃이니 풀이니 우주 만물 모두가 성경입니다.  
성경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건, 그게 다 '복음'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아니에요. 우주가 망원경입니다. 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인생 자체가 하나의 망원경입니다. 우주도 성경이고, 인생도 성경이지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성경인 때문입니다. 사건이 다 성경이에요. 우주가 다 말씀입니다. 사건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자신도 말씀이지요. 내가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송이 되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기도가 되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말씀이 되니까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한다.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한다. 하나님의 찬송을 우리가 기뻐한다는 기도와 성경과 찬송, 이 세 가지가 바로 나입니다. 기도 따로 있고, 성경 한 구절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이요, 내가 찬송이요, 내가 기도가 될 때 바울 선생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나는 그저 “기도와 성경과 찬송”이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살면 그것이 찬송이요 성경이요 기도가 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 보고, 찬송 부르

고, 기도하고, 성경을 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이 어디 또 있습니까. 찬송 부르는 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처럼 좋은 것이 어디 또 있습니까. 이 좋은 것 다 내버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이화대학교 식으로 표현하면 진리는 진眞이 되고, 길은 선善이 됩니다. 길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이고, 도덕의 핵심은 선이거든요, 생명은 미美로 표현됩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 가운데 생명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 길, 생명을 진·선·미라고 바꾸어 붙인 것뿐이지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인간 누구나가 찾는 최고의 가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그 이상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진선미가 곧 최고의 가치지요. 이 최고의 가치가 실지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내가 만져도 보았다. 내가 말을 들어도 보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진선미가 구체화 되어서 예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선미입니다.

그 진선미를 우리가 왜 자꾸 찾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지요. 나도 진선미가 되고 싶은 거지요. 가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좀 더 있다 믿지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있다 믿는다면 언제 믿겠다는 겁니까. 최고의 가치, 진선미는 당장 붙잡아야지요. ‘아름다움’을 붙잡고, ‘참’을 붙잡고, ‘선’을 붙잡아야지. 조금 있다가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조금 있다 붙잡지요” 그러겠어요? 당장 붙잡겠지요. 그렇듯 진선미라고 하는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우리가 아는 순간 곧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끝) 

- 이 글은 『김홍호 사상 전집 - 사랑 삶 사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홍호(1919-2012)** | 다석 유명모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화와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 빛 힘 숨(십자가 부활 승천)

요한복음 강해 (전5권) 세트



김홍호 저 | 사색 판 | 56,000원

『김홍호 사상 전집』 제8권~12권이 출간되었다. 이번 책은 『빛 힘 숨: 십자가 부활 승천』의 제목을 가진 요한복음 강해 다섯 권이다. 이 책은 일러두기에 소개된 것처럼 21장 81절로 구성되어 있다. 21장은 요한복음의 21장이며 81절은 81회의 강의를 말한다.

이 책은 저자 김홍호 선생이 1993년 3월 7일부터 1995년 6월 25일까지 이화여대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강의했던 것으로 총 2년 반, 다섯 학기 동안 해온 81회의 강의들이다. 이 강의들을 학기 별로 나누어 전5권으로 출간하였다.